

**전일동향**

전일대비 10.20원 하락한 1,380.40원에 마감

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0.20원 하락한 1,380.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20원 하락한 1,386.00원에 개장했다. 하락 출발한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역외 롱스탑 물량 출회, 외국인 국내 증시 매수세 등 레벨을 낮췄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한산한 시장 속 1,380원 초반대를 등락했고 1,380.4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58.8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85.60	1386.00	1379.90	1381.00	1381.90
	엔화	859.85	860.81	855.03	855.81	-
	유로화	1499.75	1500.73	1488.54	1492.3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01	-7.04	-15.04	-30.18
	결제환율(수입)	-1.35	-6.09	-13.25	-26.7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선호 확대에...1,380원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0.40) 대비 0.95원 상승한 1,379.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약달러와 시장 위험선호 심리 지속세에 따라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달러화는 뉴욕장 휴장에 따른 한산한 거래 속 유로화와 파운드화 강세에 하락했다. 유로화는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6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 총선 출구조사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달러화는 경제지표 부진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연준이 금리인하 신중론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오늘 밤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표 둔화 전망에 약달러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일 국내를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간밤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 지속은 금일 환율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375.00 ~ 1385.0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220.1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95원 ↑
	■ 美 다우지수 : Holyday(Independence Day)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6.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5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